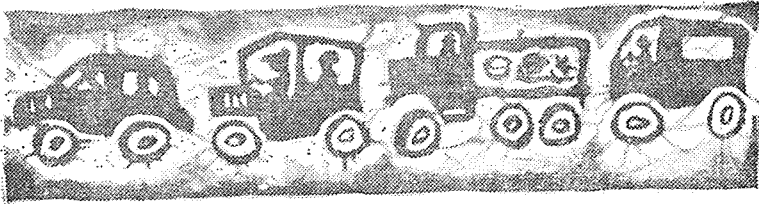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체험의 주변



現代齒科技工所

具安信 · 甘泳三

<우편번호 : 100>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63의 15

(관문빌딩 15號室)

(二三) 七二一〇 · (23) 7210

□ 亞太會議에 代表團파견

齒協 86년회의 韓國개최 提案방침

齒協은 내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 8차 아시아·太平洋齒科會(APDF/APRO)議에 金仁哲회장(수석대표)을 비롯 金榮基 총무이사·金一京 군무이사(교체대표)등 22명의 대규모 代表團을 파견할 계획이다.

齒協은 이번 亞太회의대표단 파견을 위해 현재 관계당국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같은 대규모 대표단 파견계획은 86년도 제10차 亞太회의의 한국유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齒協은 지난 9월 그리스에서 개최됐던 제64차 FD1총회 APRO회의서 86년도 亞太회의에 한국개최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번 마닐라 亞太회의에서 同會議의 한국개최를 정식제안할 계획이다.

「齒科醫學의 진보와 문제」라는 主題로 개최되는 이번 亞太회의서는 ①치과교육 ②치과공중보건학에 관한 문제 ③구방에 있어서의 치과의사 ④치과의사의 자격문제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 長期治療 일부 疾患

保社 醫療保護·醫療保險서 除外검토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醫療保護사업과 醫療保險制度에서 保社部는 치료대상 疾患에서 장기간 治療를 요하는 일부질환을 除外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注目を 끌고있다.

保社部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生保者와 低所得者에 대한 醫療保護사업을 위한 세부준비작업의 하나로 診療가 수요防止對策을 마련중에 있는데 장기간의 치료기간을 요하고 保社部가 책정한 치료예산범위(外來 1일 4백원에 2일간, 入院 1일 5천원에 2주간)보다 월등히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환은 이 醫療保護치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醫療保險의 경우에도 우선 이와같이 장기간 高額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保社部가 의료보험요양급여대상에서 이같은 疾患을 제외시키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것은 突出發을 하게되는 醫療保險組合이 이들 질환에도 일괄해서 요양급여를 해야 할 경우 醫療保險組合의 財政이 이를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것이다.

保社部는 이러한 판단아래 成人 病질환과 精神病질환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弗素塗布를 自家塗布사업으로 轉換

齒協, 保社部에 口腔保健사업 改善方案 제출

大韓齒科醫師協會는 정부의 口腔保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國民의 口腔保健향상에 기여키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弗素塗布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을 내용으로한 口腔保健事業改善案을 마련, 保社部

에 제출했다.

齒協은 이 口腔保健사업 개선방안에서 齒牙상실의 주원인 疾患이 齒牙齦蝕症과 齒周疾患임을 감안, 이의 豫防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公認되고 있는 弗素塗布사업이 淸경이나 시행과정에서 구강보건전문인력의 부족과 과다한 경비등 어려운 점이 많아 弗素自家塗布사업으로 전환 실시하므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술사용법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齒協은 이 弗素自家塗布사업을 전국 국민학교 아동 6백만명을 대상으로 學급담당교사를 통해 기술지도를 하고 學동스스로가 불소도포를 하도록 매일 점심식사후 치술질을 시키고 0.05%의 弗化소다용액으로 양치질을 시키 매년 1회씩 그 결과를 평가, 내년부터 8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면 치아우식예방과 구강보건계몽에 큰 효과를 거둘것이라 했다.

齒協은 그 실시방안에서 대상학동수를 연차별로 확대하고 매년소요예산을 77년에 10만학동을 대상으로 불화소다비 하수도설치비등 1천2백61만8천원, 78년 1백만명 1억1천5백29만9천원, 79년 2백만명 1억4천3백46만원, 80년 4백만명 2억8천6백92만원, 81년 6백만명 3억2천1백48만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그런데 保社部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소도포사업은 금년도에 1천57만9천원의 豫算을 투입 불소도포요원 9명과 27개 保健所에 배치돼있는 치과의사로 전국 국민학교 저학년아동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국민학교아동 6백만명의 3.3%만이 실시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保社部는 내년도에

이에 따른 가용예산을 1천2백52만 4천원으로 책정하고 불소도포사업의 적절한 시료를 도모키위해 불소도포사업의 개선 또는 사업전환방

안을 강요하고 아울러 치과의료제도를 개선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에 따른 節次등을 명시했으며 또한 個人이 病院을 개설하는데 따른 節次를 明示규정해 놓았다.

이 改正案은 法令整備委의 심의를 거쳐 法制處에 회부 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齒醫學교육 臨床에만 置重

제1회 齒科醫療教育 워크샵서 지적

제1회 齒科教育워크샵이 「齒科大學 教育에 있어서의 教育課程開發」이란 主題를 가지고 개최, 현행 齒醫學교육이 臨床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으며 國試문제가 暗記위주의 문제로 되어있음이 지적돼 齒醫學教育改善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됐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서울·延世 慶熙·朝鮮·慶北·齒大 등 전국5개 齒大學長·教授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醫大 醫學教育硏修院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원칙(선드람·WHO자문관) ▲현행 齒醫學교육 과정의 문제점(金明國·서울齒大) ▲교육목표설정(崔三燮·梨花醫大) ▲학습경험 및 교육방법선정(金勇一·서울醫大) ▲교육평가과정·시험문제작성법(金인舜·연세의대) 등

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전체회의가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현행교육과정·國試에 있어서의 難문제점등이 특히 지적됐는데 현행 齒科醫學教育이 기초학등은 外面, 臨床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으며 國試出題경향이 暗記위주의 문제로 되어있어 學生들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 못된다고 지적, 앞으로 齒醫學교육은 판단위주로 실제 患者診療에 응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는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이와 아울러 교수인력의 확보를 비롯,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의 개편, 실습재료의 보충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 口腔保健행정 機能강화

口腔保健會 重要사업으로 推進

대한口腔保健學會(회장·朴光辰)는 지난달 25일 延世齒大캐미나실에서 제14회 총회및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과의료 전달제도와 구강보건행정기능의 강화등에 역점을 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學術大會에서는 ▲齒科醫療 전달제도의 概念(한경섭·국립보건연구원) ▲韓國人齒周疾患率조사연구(金鍾培·서울齒大) ▲學校給食이 영구우식경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吳尙一·서울대학원) ▲20代成人에서의 치아우식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白大日·서울대학원) 등 모두 7편의 열제가 발표되었다.

□ 리도카인共同購買 실시

齒協 品質로 齒科治療 차질 빚어

齒協은 최근 마취제 「리도카인」이 品質현상으로 齒科診療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감안, 리도카인을 공동구입 진료업무에 원활을 기하기로 했다.

齒協은 각소득 齒科醫師協會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필요량을 파악 1월5일까지 대금이 납부되는대로 현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구입하는 「리도카인」은 美BL렌탈社의 「그리함 리도카인」으로 50एम플러 1통에 3천6백원이 다.

□ 診療記錄簿保存 5년으로 短縮

保社部 醫療法施規 개정안法令整備委에

醫療法施行規則改正을 추진해온 保社部는 진료에 관한 기록의 保存期間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改正案을 마련, 이를 法令整備委員會심의회에 회부했다.

현행 醫療法施規에 의하면 診療記錄簿를 비롯한 환자의 명단,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및 동부본,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등을 10년간 保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同改正案에서는 免許證의 更新申請 의뢰기관의 개설·폐업 신고등 소속中央會인 경우에 있어 3일 이내에 경유해야하도록 明文規定해 놓았다.

이밖에 僑胞醫師 齒科醫師로서 國內醫師 齒科醫師 免許를 취득하여 醫療機關을 개설하고자 할때 이

齒協의 이같은 리도카인 공동구입은 최근 시중에 同品目이 풀리현상을 빚어 구하기가 힘든데다가 시중에서 1통에 4천5백원에서 5천원까지 거래되고 있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다.

□ 第12回定期總會서金聖培회장再選出

齒技協定總부회장인 徐基完·奎奎吳·尹南基

대한齒科技工士協會는 지난 11일 國立醫療院 대강당에서 제12회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회장에 金聖培씨를 계속 留任시키고 4백33만4천67원의 77년도 豫算案을 집행부 原案대로 통과시켰다.

金仁哲齒協會長등 來賓다수와 代議員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총회는 金聖培회장의 개회사 申鉉燾보사부장관(의정2과장代讀) 金仁哲齒協會長, 松風愼-日本松風陶齒社長의 축사등이 있었으며 韓世鉉총무등 7명에 功勞牌, 張慶植보사부의경국장, 松風愼-社長, 李永俊회원의 9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이어 1백63만1천9백원의 76년도 決算, 會務報告·監査報告를 받아들이고 임원개선에서 의장에 崔忠義 부의장에 金周泰·趙煥東씨를 선출하고 회장단 선출에서 회장에 金聖培씨

그런데 최근 齒科材料界에서는 수요도가 높고 인기품목인 리도카인·테가로이·폴티베스트등 일부 품목이 풀리현상을 빚고 있으며 최근 레진치의 價格이 오름세에 있다고 한다.

를 계속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徐基完·奎奎吳·尹南基씨를 각각 선출하고 명예회장에 金成熙 고문에 崔樂基씨를 추대하는 한편 의안 심의에 들어가 경관개경에서 회원보수교육은 1년에 10시간 필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자체이사제신설, 시도지부회의 회기를 11월달로 변경했다.

한편 각시도에서 올라온 의안 ①치과기공소 TO제해제 ②무자격자 취업금지 ③보수교육강화등 9개의 안등을 장시간 토론끝에 집행부에 수임사항으로 위임하고 ①학술대회 및 보수교육개최 ②해외에있는 회원과 유대강화 ③기자제수금방안검토등의 신년도사업계획과 회원 1인당 년회비 3천6백원으로 책정하던 4백33만4천67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齒協은 최근 國內外에 「○○회」 또는「○○연구회」등 異常組織體를 구성 과대광고행위를 자행하므로 齒科醫師의 品位를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나아가 國家의 위신마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을 감안, 自體정화의 일환책으로 이러한 행위자를 조사, 처리해주도록 서울齒醫會에 지시했다.

齒協은 이 지시에서 이같은 과대광고행위는 醫療法 제46조 및 定款 제11조 3항 제14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치과의사의 윤리에 입각해서 자체정화의 일환책으로 이를 시정토록하고 만약 이같은 행위를 묵인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련類의 과대대광고행위자 또는 이상조직체가 구성될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齒協은 이 지시에서 오는31일까지 이같은 행위자를 조사 처리하여 그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련 행위자 또는 이상조직체의 구성이 재발되지않게 각별 유의하여 그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당부했다.

□ 朴재중大領 准將승진

齒界서 두번째 장군

치과계에 두번째로 별이 탄생하였다.

1977년 1월 1일 일자로 육군준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육본치무병과 과장인「박재중」대령이 장군으로 승진발령되었음이 지난 16일 치과인들에게 알려지자 치계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치과계서 장군이 탄생한 것은 이재철장군에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박장군은 경남 태생으로 서울치대 10회졸업생이다.

□ 새마을診療院患者늘어

運營誠金積極 協助要請

齒協 새마을齒科診療院운영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합을 갖고 同診療院운영에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서는 同診療院 내원환자가 날로늘어 1일평균 20명씩 되고 있음에따라 운영비도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 적어도 내년4월

총회까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서울齒醫會에 운영성금 모금에 적극협조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운영위원들이 개인별 찬조환등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YMCA파출부에 무료진료권을 송부키로하고 診療守則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 異常組織體구성 誇大廣告규제토록

齒協 醫療法위반, 國威추락 品位損傷憂慮